제5·6호 통합호

발행일 2018년 10월 10일

청소년동학신문

창간 2015년 10월 31일 **발간** 고창군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대표전화** (063)564-2121 **진행** 책마을해리 **편집디자인** 친친북스 **문의** (070)4175-0914

청소년동학캠프 '농민군 발자취 따라'

전국에서 모인 60여 청소년, 동학군 진격로 걸으며 동학정신 되새겨

2018년 청소년 동학캠프가 6월 16일부터 17일, 8월 4일부터 5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누어 고창을 비롯하여 광주, 전주, 대전, 서울 등 전국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책마을해리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진윤식 이사장님의 특강을 들었다. 마냥 어렵게 느껴졌던 동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강이 끝난 후 청소년농민군들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접으로 나눠 접주를 선발하고 모둠 원들과 함께 모둠 깃발을 만들며 결속을 다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동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보았다. 처음 도착한 장소는 무장기포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운동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장소'라고 말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기포지에 내려서 포고문을 함께 읽어보고, 당시 농민군이 염원했던 세상의 모습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동학농민혁명홍보관과 무장읍성, 전봉준 장군 생가에서는 동학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만 들었던 장소에 직접 와보니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더 와 닿았고, 농민군의 용맹함과 뜨거운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1차 동학기자단은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팟캐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해보았다. 이후 7명의 예술가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주며,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방법 등에 대해 특강을 해주셨다. 자신만의 꿈을 나무판자에 적고 꾸며보는 작업을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뜻 깊었던 동학인문콘서트가 끝나고, 미리 작성해놓았던 시나리오를 토대로 촬영을 시작했다. 각 팀마다 개성 있고 멋진 팟캐스트 뉴스가 완성되었다.

2차 동학기자단은 동학이 추구하는 중요한 사상인 '평등과 평화'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한줄 평을 적은 책갈피를 만들어 나무 위에 지어진 '동학평화도서관'에 직접 꽂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평등'에 관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해보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모두가 평등해지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둘째 날에는 지금까지 기록하고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팀, 일러스트팀, 사진팀으로 나누어 기사를 작성하였다. 기사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들 최선을 다해 기사를 완성했다.

2018년 청소년동학캠프를 통해 뜨거웠던 동학정신을 되새기며 동학농민혁명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경헌·강지훈·허채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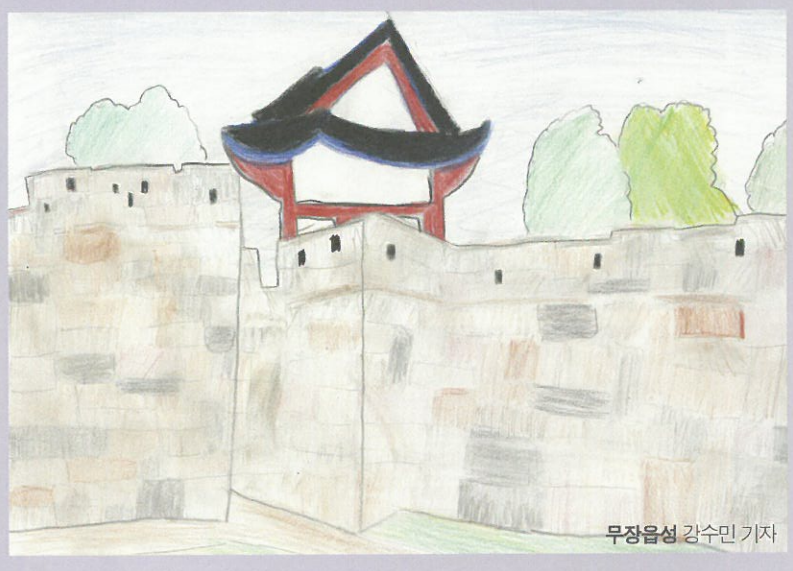
제5호 청소년동학신문 내용 소개

2~3면 **고창동학농민혁명 현장을 가다**
무장기포지/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봉준생가/ 동학농민혁명홍보관
4~5면 **동학농민혁명을 배우는 몇 가지 방법**
동학인문콘서트/ 동학팟캐스트/ 동학애니메이션/ 동학다큐멘터리
6면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7면 **우리 삶 속 동학정신**
8면 **청소년동학신문 기자단 소개**

2018 청소년동학캠프단 동학농민혁명 유적 답사

동학농민혁명, 그 길을 따라

무장기포지 복윤정 기자



무장읍성 강수민 기자

동학농민혁명홍보관 우휘원 기자

전봉준생가 이지윤 기자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 무장기포지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다

청소년동학기자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첫 시작을 알린 장소인 무장기포지에 다녀왔다. 무장기포지는 전봉준과 손화중, 그리고 김개남이 사전모의를 한 뒤 포고문을 읽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곳에는 동학농민군이 포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새겨진 기념탑이 있다. 포고문에는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과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는 제폭구민(除暴救民)의 내용이 담겨있다.

청소년동학기자단이 무장기포지에 방문했을 당시, 주변이 공사 중이라 소란스럽고 복잡하였다. 우리는 기포지를 둘러보기 전, 간단한 퀴즈를 통해 무장기포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많고 많은 장소 중 이곳에서 기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 이곳이 넓은 백사장이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기 용이하고 주변이 곡창지대라 농민군들의 식량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둘러봤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겠지만, 자세히 배우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느껴졌다.

윤상 · 김윤명 · 전혜진 · 변현지 기자

동학농민혁명군 당당한 무혈입성 무장현 관아와 읍성

농민군과 함께한 사람들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 도착한 청소년동학기자단은 우선 해설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진무루 누각에 둘러앉았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창읍성이 먼저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장읍성이 36년 정도 먼저 지어졌다고 한다. 또 무장읍성은 우리나라의 많은 성들 중 성을 쌓은 용도가 가장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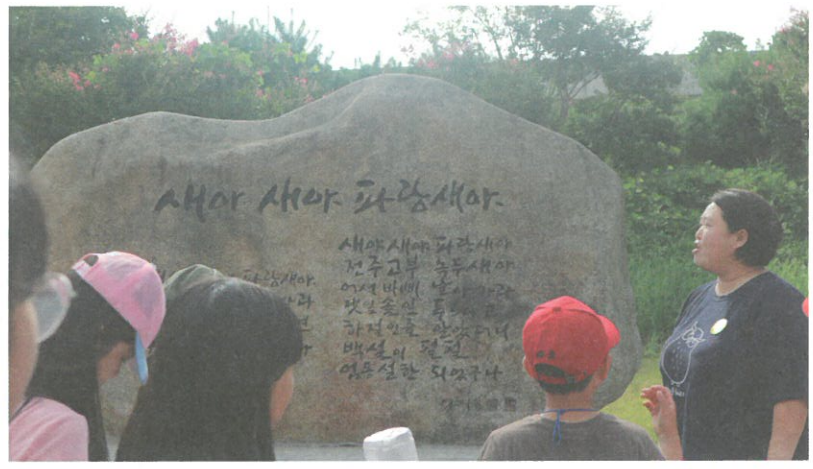
무장기포지에서 진격을 시작한 동학농민군은 구수내-소속재-과실재를 거쳐 무장읍성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과 흥덕의 관아 건물이 불타고 온갖 공문서들이 불타 없어졌지만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했다. 여기에는 무장 출신 농민군의 만류와 함께 농민군에 대거 동조한 그곳 서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해설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난 뒤 우리는 조별로 미션을 수행했다. 미션지에 적힌 힌트를 보고 정확히 그 장소에 가서 모든 조원이 함께 사진을 찍어 오는 것이다.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마지막 활동까지 끝내니 무장읍성에 대해 정리가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정유정 기자

녹두장군 전봉준생가

녹두장군을 키워낸 고창



청소년동학기자단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인물인 '전봉준 장군'의 생가에 다녀왔다. 생가 안에서 전봉준과 그의 생가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았다.

체구가 작고 야무져 녹두장군이라 불렸던 전봉준 장군은 13세 무렵까지 이곳 고창에서 살았다. 또, 당시에는 서당, 안채, 사랑채 등 많은 방이 있었으나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대부분이 복원되어 옛날집 모습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생가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유명한 시가 적힌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중요한 분의 생가를 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강희진 · 이다경 · 이경헌 · 김예서 기자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걸 알려주마 동학농민혁명홍보관

동학정신에 한걸음 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전시해놓은 동학농민혁명홍보관에 방문했다. 동학농민혁명홍보관은 자유 · 평등 · 자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 전시하고 있다. 홍보관 선생님이 사건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인 동학농민혁명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주요 인물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주이 기자

"저마다 소중한 사람"

꿈을 새긴 한밤의 동학인문콘서트

청소년동학기자단 학생들이 모두 책숲에 모여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았다. 바로 이대건 촌장님이 진행하시는 동학인문콘서트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번 동학캠프의 '동학인문콘서트'에는 건축가, 서예가, KBS 전 미술감독, 시인, 화가 등 다양한 분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 중 신정균(서예가) 선생님은 우리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며 함께 꿈의 꾸러미를 만들자고 하셨다. 직접 캘리그라피로 '청소년 동학캠프 여섯 번째 꾸러미'라는 문구를 목판에 써서 넓은 판에 붙여주셨고, 꾸러미 안을 우리의 꿈으로 채워보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글씨가 마를 동안 김학권 감독님(전 KBS 미술감독)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셨고, "너희가 주인공이야!"라는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다. 곽재환(건축가) 선생님은 꿈에 대한 좋은 말들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각자의 꿈을 목판에 써내려갔다. 여러 가지 색 물감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꾸며주기도 하였다. 우리의 꿈이 적힌 목판을 넓은 판에 나사로 고정시켜 걸어주었다. 의사와 검사, 크리에이터, 제과제빵사, 우주공학자, 선생님 등 학생들의 다양한 꿈이 꾸러미 안으로 들어갔다. 완성된 꾸러미 앞에서 다함께 단체사진을 찍으며 인문콘서트를 마무리했다.

강지훈 기자

대본도 '척척' 연기도 '척척' 청소년 동학팟캐스트 촬영

1차 청소년동학기자단 학생들과 함께 '동학'이라는 주제로 팟캐스트 뉴스를 만들어보았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총 세 접으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동학의 다양한 이야기들 중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출지 의견을 나누며 동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콘서트가 끝난 뒤 각 접별로 팟캐스트 영상을 촬영하였다.

먼저 전봉준 접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인 전봉준 장군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기획했다. 두 명의 앵커가 뉴스를 진행했고, 인터뷰를 위해 한 학생이 전봉준 장군 분장을 하여 많은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전봉준 장군으로 육행시를 준비하기도 했다.

손화중 접은 오전에 특강을 해주신 진윤식 선생님의 인터뷰와 다양한 동학이야기를 뉴스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김개남 접은 리포터가 시민에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동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로 보여주었다. 인터뷰하는 시민의 모습이 다양해서 다른 팀 학생들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짧은 팟캐스트 촬영이었지만, 동학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가 함께 만든 동학 팟캐스트를 보는 다른 학생들도 동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윤율·우휘찬 기자

"평등한 세상을 꿈꿔요"

차별·빈부격차·성평등 주제로 애니메이션 제작

지난 8월 4일 청소년동학캠프(2차)에 참가한 친구들은 '평등'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애니메이션의 컷아웃 기법을 활용하여 각 접별로 평등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를 구상했다.

우선 전봉준 접은 베트남에서 온 한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다문화인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구상했다.

김개남 접은 우리나라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빈부격차'에 관해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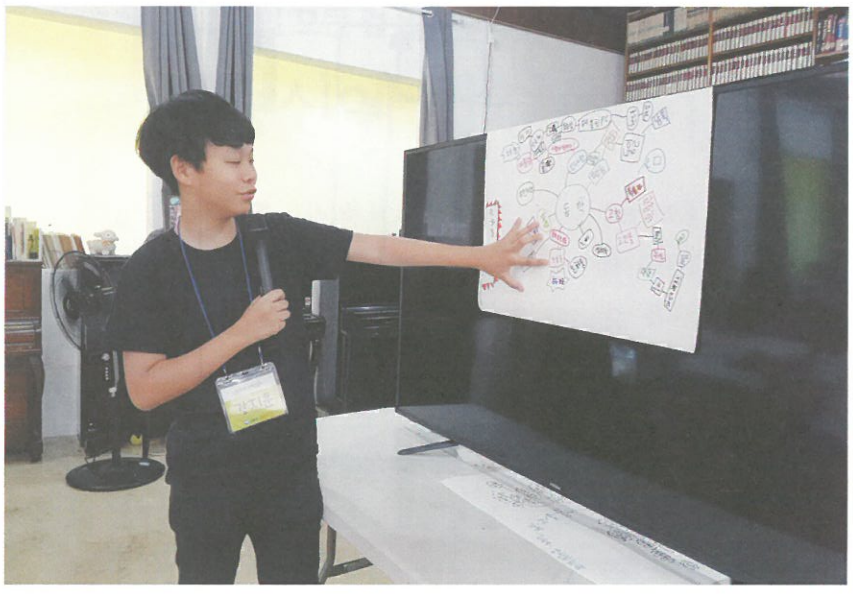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손화중 접은 우리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마의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연출하여 가정 내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짧은 시간 내에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접원들과 함께 해서 즐거웠고 다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평등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인 평등에 대해 고민해보고 접원들 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승헌·최원준·변현영 기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불꽃

민족·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진 동학농민혁명

이번 시간에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중에 의해 일어난 전국적 농민항쟁으로서 근대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동학농민혁명은 결국 관군과 침략세력인 일본 그리고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에 의해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맥은 항일의병항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 및 광복군 활동 등의 민족운동과 4·19혁명 및 5·18광주민주화항쟁 등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2016년 겨울 전국을 뜨겁고 환하게 밝힌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다.

동학농민혁명에 의해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신이 이어져 지금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정해지지 않아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전국적 혹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기념일로 정하자는 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음력 3월 20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이 날은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대항을 시작하기 위해 '무장창의문'을 발표하는 등 혁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날이었기 때문이다.

공다영·문지우 기자

"나무 위 트리하우스가 도서관으로" 책마을해리 동학평화도서관 개관

책마을해리에는 다양한 빛깔의 도서관이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도서관이 동학평화도서관이다. 동학평화도서관은 책마을해리 입구 50여 년 된 플라타너스 나무 위 트리하우스에 자리하고 있다. 책마을해리 트리하우스는 말 그대로 나무 위에 지은 집이다. 지난해부터 책마을해리 예술학교장 류충렬 화백과 청소년인 문건축학교 친구들이 함께 만들었다.

2018년 청소년동학캠프 친구들이 동학평화도서관을 탐방하였다. 동학평화도서관에는 이름처럼 동학농민혁명과 평화와 관련된 책이 있다. 이번 청소년동학캠프에 참가한 친구들이 책마을해리 안에 있는 책들 가운데 평화와 관련된 책을 직접 골랐고, 책을 읽은 후 정성스레 짧은 서평을 적어 책에 꽂았다. 이후 동학평화도서관 책꽂이에 직접 책을 꽂아보는 체험을 하였다. 친구들이 선정한 책은 『엄마에게』, 『전쟁놀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등이다.

많은 사람들이 책마을해리 동학평화도서관에 와서 동학과 평화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바로 알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윤상 · 박현선 기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 이사장 특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2018책마을해리 청소년동학캠프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 이사장님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던 고부민란은 1893년 겨울부터 준비를 시작해 1894년 정월대보름 걸군행사 때 시작되었다. 당시 벼슬아치들은 호남평야의 곡식을 세금 이외에도 갖은 명목으로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일삼았는데, 이를 견디기 힘들었던 농민들이 나쁜 관리를 몰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궐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좋은 관리를 파견하여 공평한 법 집행을 바랐던 농민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란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에 당시 서당훈장이었던 전봉준이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교도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하였고, 고창으로 와서 손화중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1894년 3월 20일(음력) 무장면 구수내에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합류하여 관찰사가 있는 전주로 입성을 결의하는 포고문을 발표한다. 이것이 바로 무장기포다.

이들은 전주로 가는 길에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먼저 고부를 향해 가서 고부징치(고부군수 조병갑을 몰아냄)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식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 청나라 등 외국 군대의 개입과 관군의 진압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진윤식 이사장님은 우리들에게 역사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지혜로움을 갖추고, 친구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박도현 기자 · 책마을해리 신영순 기자

4컷 만화

평등한 세상 가정의 평등으로부터

김윤혁 · 김정헌 기자

"우리가 동학人"

내가 생각하는 동학정신, 평등으로부터 오는 평화

강수민 이번 동학캠프를 통해 평화와 평등에 관한 정신을 배웠고,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동학정신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복윤정 동학정신 중 충효사상을 본받아 밤마다 부모님께 10분씩 안마를 해줄 것입니다.

이지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다.

윤율 사람이 귀한만큼 자원도 귀하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도현 나는 용감한 전봉준 장군을 본받아 집에 벌레가 있으면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잡을 것이다.

강희진 사람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므로, 나 강희진은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지켜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경 사람을 하늘로 생각하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우휘원 동학농민운동의 용감한 지도자 전봉준을 본받아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것이다.

김주이 부모님께 효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키우시는 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유정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할 것이다.

윤린 모든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할 것이고, 오빠랑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휘찬 사람은 곧 하늘이라는 동학정신을 배웠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박정민 동학정신인 인내천, 즉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다경 내가 생각하는 동학 정신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말자'이다. 그래서 싫어하는 친구라도 말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청윤 내가 생각하는 동학 정신은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평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평해야 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

전혜진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없으면 평등하고 평등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정승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대접해줘야 한다.

강지훈 신분, 재산, 종족 등에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는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이런 동학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놀리지 않고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줄 것이다.

김승헌 지금까지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부터는 동학의 평등정신을 본받아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다.

김예서 제가 생각하는 동학정신은 평등입니다. 평등하지 않은 것을 찾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것입니다.

김윤명 인종을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박지성 선수처럼, 미국 최초 흑인대통령 오바마처럼, 어떠한 인종이든 누구나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현지 친구들이 평등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건 평등하지 않은 행동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변현영 성차별로 인해 남자, 여자끼리 싸우니까 서로 힘들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유수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할 것이다.

문지우 평등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친구와 과자를 나눠먹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똑같이 나눌 것이다.

김연휘 우리 반에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중국인인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우리 문화를 잘 몰라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해줘야겠다. 또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인간을 존중하자.

이정현 내가 생각하는 평등이란 사람들이 각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생활할 것이다.

박현선 진정한 동학정신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우리 반에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겠다.

유도현 모든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공다영 집에서 엄마만 집안일을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안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김윤혁 동학의 평등과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친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태윤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빵을 똑같이 한 개씩 먹는 것입니다. 또 평화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학정신의 인간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입니다.

최원비 여자라서 얌전해야 한다거나 남자라서 울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양성 모두를 평등하게 여긴다.

허채윤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차별 받는 사람들 편에 서, 같이 있어주거나 말을 걸어주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평등을 위한 캠페인도 해보고 싶다.

최원준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동학정신은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하지만 한번 존중해보면 큰 깨달음을 알 수도 있고 평화와 평등을 유지할 수 있다.

김태윤 동학정신은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평등한 것은 내가 학원을 많이 안 다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조금 다니는데 나만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정헌 내가 생각하는 동학정신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것이다.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윤상 내가 생각하는 동학정신은 평등, 평화, 인간존중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경헌 내가 잘나면 우월주의를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못나면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 항상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한 대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동학만평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그림/ 정승현 기자

강수민(12세/ 광주 서일초등학교 5학년)
저는 플로리스트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특히 무장읍성이 기억에 남는데, 보자마자 균형, 조화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벽돌이 조화롭고 멋졌습니다.

이다경(14세/ 전북 고창 해리중학교 1학년)
꿈은 제과제빵사인데요. 그 이유는 맛있는 냠냠들을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동학캠프에 참여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기사를 써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서 좋았습니다.

복윤정(12세/ 전북 전주 인봉초등학교 5학년)
장래희망은 아이들을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동학캠프에 처음 와봤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이지윤(12세/ 전북 전주 만성초등학교 5학년)
제가 좋아하는 것은 노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은 숙제예요! 동학캠프에 와서 동학에 대해 잘 알았고 여기서 했던 활동 모두 재밌었습니다.

윤율(13세/ 광주 대자초등학교 6학년)
제가 잘하는 것은 영어이고, 좋아하는 것은 운동인데 특히 농구를 좋아합니다. 캠프를 참여하면서 작은 팟캐스트 뉴스를 만들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박도현(13세/ 전남 영암 독천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동학캠프가 처음에는 솔직히 역사공부하는 줄 알고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지내보니까 재밌는 활동을 해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정유정(13세/ 전북 전주 새별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과 여러 곳을 현장취재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강희진(14세/ 전북 고창 해리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다양한 것을 알려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동학 정신 등을 더욱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주이(11세/ 전북 전주 만성초등학교 4학년)
취미는 피아노 치는 것, 좋아하는 것은 과일입니다. 캠프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휘원(10세/ 전북 전주 진북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즐거웠다. 캠프를 통해 신기하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김청윤(12세/ 광주 만호초등학교 5학년)
취미는 야구이고 장래희망은 야구선수이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똑같이 야구, 게임, 노는 것이다.

전혜진(14세/ 전북 고창 해리중학교 1학년)
저의 꿈은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취미는 피아노, 배드민턴 등이 있습니다.

정은경(13세/ 광주 용주초등학교 6학년)
제 꿈은 회계공무원입니다. 캠프에 와서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았고, 지루한 토요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김승헌(13세/ 광주 성진초등학교 6학년)
취미는 놀기이고, 꿈은 아직 없다. 좋아하는 것은 치킨이다.

김예서(13세/ 광주 북초등학교 6학년)
저의 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중심인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윤명(17세/ 전북 고창고등학교 1학년)
현재 꿈은 요리사이다.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동학농민혁명'하면 전봉준 장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휘찬(12세/ 전북 전주 진북초등학교 5학년)
나중에 커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동학캠프에 와서 동학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유수현(11세/ 광주 화개초등학교 4학년)
저의 취미는 마술이고, 꿈은 과학자입니다. 동학캠프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워 신이 납니다.

문지우(13세/ 대전 용산초등학교 6학년)
캠프에 참여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제윤(12세/ 광주 송정동초 5학년)
꿈은 우주비행사이고 제가 잘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캠프에 와서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친해져서 정말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박정민(14세/ 전남 영암 낭주중학교 1학년)
동학농민운동 유적지를 직접 봐서 좋았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들었던 활동도 재미있었습니다. 제 꿈은 외교관인데,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며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강지훈(18세/ 전북 고창 영선고등학교 2학년)
제 꿈은 자동차정비사입니다.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꼼꼼하고 바르게 정비할 것입니다.

변현영(12세/ 광주 태봉초등학교 5학년)
꿈은 포토그래퍼, 동물원보안관입니다. 캠프 프로그램도 재미있고 밥도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김태윤(12세/ 광주 삼각초등학교 5학년)
좋아하는 것은 만드는 것과 피아노 치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것은 공부와 기계 만드는 것입니다. 동학캠프는 재미있었고 동학정신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이경헌(19세/ 전북 고창고등학교 3학년)
1년 후면 20살 성인이 된다. 진로는 바리스타로 정했는데, 아직 커피랑 친하지 않다. 이번 캠프를 통해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것이며 글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도현(13세/ 광주 화개초등학교 6학년)
저의 취미는 야구이고 제 꿈은 의사입니다. 캠프 동안 누나, 형아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현(13세/ 광주 유촌초등학교 6학년)
'동학'하면 전봉준 밖에 모르던 제가 손화중, 김개남, 최제우 등의 인물도 알게 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윤(10세/ 광주 만호초등학교 3학년)
축구선수와 야구선수가 꿈입니다. 캠프를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박현선(12세/ 광주 두암초등학교 5학년)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처음에는 동학캠프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밥도 맛있었다. 동학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다.

공다영(12세/ 광주 문화초등학교 5학년)
장래희망은 아나운서이다. 처음 동학캠프에 왔을 때는 낯설었지만 동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자 점점 흥미가 생겼다.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고 강의를 들으면서 알찬 1박 2일을 보냈다.

김연휘(11세/ 광주 삼각초등학교 4학년)
취미는 놀기이다.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이고, 다음에도 동학캠프를 하면 꼭 오고 싶다.

김윤혁(14세/ 전북 고창 해리중학교 1학년)
제 꿈은 동물 사육사입니다. 캠프 일정이 많아서 힘들고 하루를 바쁘게 보냈지만, 재미있는 점도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고창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변현지(12세/ 광주 태봉초등학교 5학년)
취미는 요리이고, 좋아하는 것도 요리라서 내 꿈은 요리에 관한 것이다. 나는 이 캠프를 통해 기사 쓰는 방법 등 다양한 것을 배워서 좋다.

최원비(13세/ 광주 월계초등학교 6학년)
저의 꿈은 유엔(UN) 사무총장입니다. 캠프를 통해 동학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허채윤(15세/ 서울 풍납중학교 2학년)
글쓰기와 책 읽는 것, 바느질 등이 취미이고, 손으로 만드는 건 대부분 잘합니다. 조금 생소했던 '동학농민운동'에 관해 알아볼 수 있어 좋았고, 평등이나 평화에 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정승현(13세/ 전북 고창 상하초등학교 6학년)
제가 좋아하는 것은 녹차, 푸딩, 빵 등이 있습니다. 취미는 책 읽기와 피아노 치는 것입니다. 캠프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참 좋았습니다.